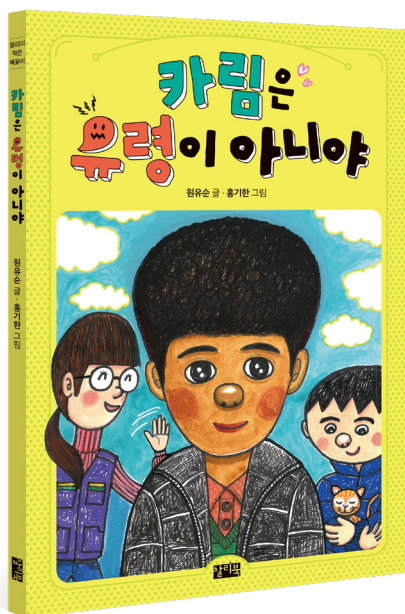


즐거운 상·상 놀이터 **칼리북**

카림은 유령이 아니야

독후 활동지

원유순 글 | 홍기환 그림 | 96쪽 | 값 13,000원



키워드

#태권도 #우정 #난민 #연대



대상 학년

3~4학년



교과 연계

3학년 도덕 1단원 나와 너, 우리 함께

4학년 도덕 6단원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

4학년 2학기 사회 3단원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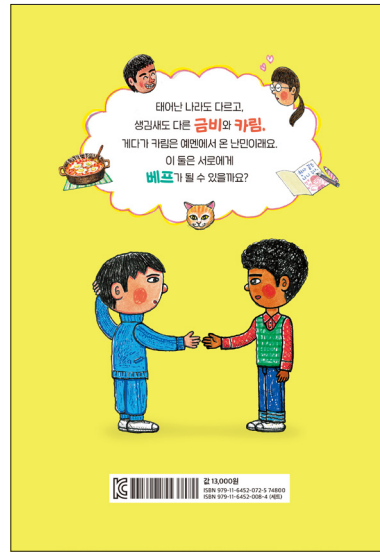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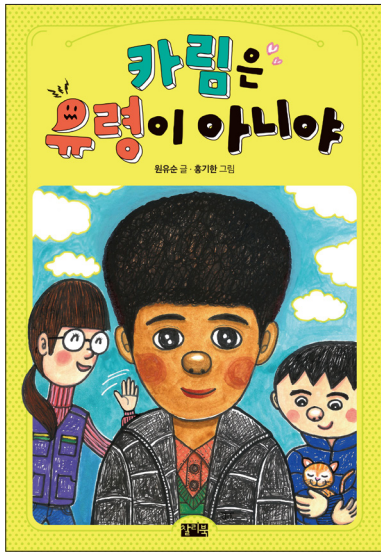


책 내용

2018년 제주도로 입국했던 예멘 난민들은 그 후에 대부분 인도적 체류자가 되어 우리나라에서 살아갔다. 원유순 작가는 그 모습을 보고 카림네 가족을 상상해서 이 동화를 썼다고 한다. 작가는 자칫 무겁고 진지해질 수 있는 난민 이야기를 금비와 카림이 나누는 좌충우돌 발랄한 우정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내었다.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금비와 카림이 서로에게 베풀어 가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, 난민은 결코 유령이 될 수 없으며 우리 곁에서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된다.



★ 『카림은 유령이 아니야』의 앞표지와 뒤표지를 살펴보고, 아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.



• 앞표지와 뒤표지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누가 카림일지,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세요.

• 이 책의 제목은 왜 ‘카림은 유령이 아니야’일까요? 어떤 뜻을 담고 있을지 생각해 보고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.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. 마음껏 적어 보세요.



★ 카림은 예멘에서 왔어요. 예멘은 어떤 나라일까요? 책 속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.



예멘 국기



예멘 언어

예멘 기후

예멘 종교



★ 지도를 보면 카림네 가족이 어떻게 제주도로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. 금비의 질문에 카림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적어 보세요.



카림, 넌 뭘 타고 제주도로 왔어?

나는 _____ 를 타고 왔어.



카림, 넌 처음부터 제주도로 간 거야?

아니, 나는 처음엔 엄마, 아빠랑 _____ 로 갔어.



그런데 카림, 제주도에 왔을 때에 기분이 어땠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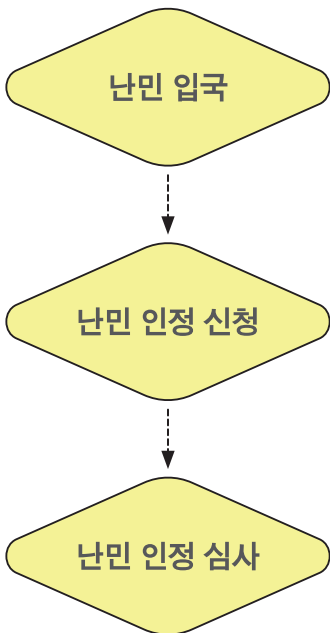
나는 _____ .



우리처럼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난민도 있지만, 배를 타고 가는 난민도 많아. 그런데 배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탔다가 종종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해.



★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은 난민 인정 심사를 통해 대부분 난민 인정자, 인도적 체류자, 난민 신청자로 나뉘어요. 카림네 가족은 어디에 속할까요?



난민 인정자

전체 난민 신청자들 중에서 약 2프로 정도만 난민 인정자가 돼요. 여러 가지 사회 보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.

인도적 체류자

난민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1년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. 여러 가지 사회 보장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.

난민 신청자

난민 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.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 보장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.

카림네 가족은

○ □ △ ☆ □ △ 예요.





★ 금비가 카림과 친구가 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, 마지막에 금비가 카림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.



금비는 카림과 아직 서먹서먹해요.



금비는 나니 누나마저 카림만 챙겨 주니까 질투 나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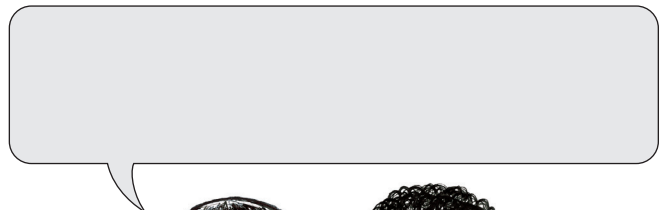
금비는 카림이 왜 난민이 되었는지 알게 됐어요.



금비는 카림을 보호하려고 용감하게 나섰어요.



금비는 카림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요.





★ 금비와 카림이 서로에게 감사 편지를 쓰대요. 나라면 어떤 편지를 쓸지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.



카림에게

A writing area for Karam with a pink background. It features a central column of six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. The area is decorated with various colorful icons: leaves, flowers, clouds, rain, and swirls. At the bottom, there are two colored pencils (green and pink).



금비에게

A writing area for Gumbi with a light blue background. It features a central column of six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. The area is decorated with various colorful icons: flowers, leaves, clouds, rain, and swirls. At the bottom, there are two colored pencils (green and pink).



★ 금비의 말처럼 난민은 유령이 아니에요. 우리와 똑같아요.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생각과 자세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보고,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.

